

광주FC 외인 5명 “상위스플릿 진입, 우리가 이끈다”

K리그1 개막 앞두고 의기투합 산드로, 부주장·공격 선봉장 역 아사니·토마스, 많은 골로 기여 아론·티모, 최소 실점 책임질 것



2023 K리그1 개막을 앞두고 프로축구 광주FC 외국인 5인방이 팀의 상위스플릿 진입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FC는 올시즌 K리그1 복귀를 앞두고 외국인 선수를 새롭게 구성했다. 기존 브라질 특급 공격수 산드로와 호주 출신 수비수 아론 외에 알바니아 출신 윙어 아사니,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티모 등 3명을 영입해 5명의 외국인 선수를 갖췄다.

이들은 국적과 언어가 각기 다르지만 올시즌 K리그1에서 광주FC의 ‘비상’을 책임지겠다고 의기투합했다. 외국인 5인방은 올시즌 팀의 상위스플릿 진입을 목표로 삼고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산드로의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광주에 합류한 산드로는 지난 시즌 K리그2 19경기에서 7골 4도움을 기록, 광주의 후반기 질주를 이끌었다.

팀이 K리그1으로 복귀한 올시즌 산드



광주FC 외국인 선수 5인방이 지난 9일 팀의 3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올시즌 K리그1에서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론, 티모, 산드로, 토마스, 아사니. 프로축구연맹 제공

로는 부주장과 공격 선봉장 역할을 수행한다.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부주장으로 선임된 산드로는 그라운드 밖에선 팀내 외국인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맡고, 안에서 공격 선봉장으로서 헌신적인 모습과 득점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산드로는 “지난 시즌 여름에 합류해 팀원들과 멋진 시간을 보냈다. 올시즌은 K리그1에서 뛰게 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부주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은 만큼 언제나 팀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며 “개인적으로 상대 수비수에 게 악몽이 되는 공격수로 거듭나 지난 시

즌 보다 더 많은 공격포인트를 올리겠다”고 올시즌 포부를 밝혔다.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아사니와 토마스도 많은 공격포인트로 팀의 상위스플릿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사니는 “광주는 지난해 K리그2 우승을 이뤘고 조직적으로 끈끈한 팀이다. 이정호 감독님의 전술과 선수들의 투지, 끈기가 대단해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상위스플릿에 올라가 또 다른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시즌을 앞두고 합류한 만큼 팀에 녹아들어 많은 공격포인트로 팀을 돕겠다”고 말했다.

토마스도 “동료들과 좋은 결과를 내 광주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또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매 경기 실천하고 다른 K리그1 팀들에게 항상 힘든 상대로 인식시키겠다”며 “팀 목표인 잔류 이상의 성적을 내도록 최대한 많은 공격포인트를 쌓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기존 수비수인 아론과 영입 수비수 티모는 팀의 최소실점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아론은 올해도 수비와 공격을 오가는 ‘슈트라이커’로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아론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안정된 수비

와 탄탄한 대인방어로 광주의 리그 최소실점(32실점)을 이끌고 적극적인 오프라핑으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광주의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론은 “지난 시즌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고 올해 1부리그에 진입한 만큼 상대팀이 쉽게 알리지 않도록 더 강한 수비와 공격으로 맞서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잔류가 아닌 상위스플릿 진입이다. 강등 1순위라는 주위의 시선을 리그 시작부터 깨도록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으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티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모든 것이 설레인다. 광주가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지만 정말 끈끈하고 강한 팀이란 걸 동계훈련을 통해 느꼈다.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유지된다면 잔류를 넘어 상위스플릿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국인 5인방은 팬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들은 “항상 팬들이 있기에 우리가 힘이 난다. 홈 경기때 많은 팬들의 함성으로 상대팀이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는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ilbo.com

송진호 회장 “소통·화합 전남체육 만들 것”

전남도체육회장 취임

송진호(사진)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날 무안 스키아워딩홀에서 송진호 신임 체육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16일부터 회장 업무를 시작한 송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정기총회일까지 4년이다.

취임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곤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22개 시·군체육회장, 각종 목단체 회장, 원로체육인, 체육지도자, 선수, 육성종목학교장, 스포츠클럽 등 체육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전남체육회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체육회기 이양, 송진호 회장 약력 소개 및 비전선포, 꽃다발 전달, 취임사, 축사, 축하영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송진호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돼 전남체육의



기틀을 체육인들과 함께 굳건히 다져나가겠다”며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와 체육인이 체육회의 주인이 되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선수 양성 및 확보를 통해 전남체육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겠다. 또 각종 생활체육행사 및 체육대회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어떠한 종목도 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체육인들의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소통을 통해 하나되는 전남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 신임회장은 민선 1기 목포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40대 남부체육교류위원, 전남육상연맹 제1대 통합회장, 전남골프협회 부회장, 전남카누연맹 홍보이사, 목포시국제축구센터 건립위원, 축구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전원, 항저우행 태극마크 청신호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전원이 오는 10월 열리는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에 청신호를 켜다.

남기원, 박진철, 김정길, 김영건, 서수연, 김성욱 등 광주시청 소속 장애인탁구선수 6명 전원은 지난 14~18일 경기도 이천선수촌 탁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했다.

1, 2차 선발전 모두 풀리그로 진행된 이번 선발전서 박진철(2체급)과 김영건(4체급)이 남자 개인단식 1위를 차지했

다. 서수연(2체급)과 김성욱(7체급)은 여자 개인단식 1위에 올랐다. 남기원(1체급)과 김정길(4체급)은 2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장애인체육회 최종 승인 후 결정된다.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체급별 랭킹 1~3위, 총 25~26명 안팎의 인원이 선발 예정인 만큼 이번 선발전서 상위 성적을 거둔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6명의 태극마크 획득이 유력시된다.

최동환 기자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6개와 은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한 나주 다시초 스키부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주 다시초 제공

나주 다시초 스키부, 전국동계체전서 기적 일궜다

설상종목서 금 6·은 2개 나경준 4관왕·소지희 2관왕 학교스포츠클럽 방향 제시

겨울 스포츠 불모지인 전남 한 지역의 초등학교 스키부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8개의 메달을 수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 다시초 스키부는 지난 17~20일 강원도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전국동계체전에 전남 초등부 대표로 7명의 학생이 참가해 금 6개와 은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6학년 나경준이 금 4개와 은 1개를 목에 걸었다. 나경준은 크로스컨트리 남자 13세이하부 클래식 3km(9분08초06)와 8km계주(26분08초09), 복합(20분03초

9), 스프린트 0.7km 등 4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프리 4km(10분55초3)에선 2위를 기록했다. 5학년 소지희는 금 2개와 은 1개를 거머쥐었다. 소지희는 크로스컨트리 여자13세이하부 클래식 3km(10분22초9)과 6km계주(21분08초2)에서 각각 1위를 했고, 복합(23분16초4)에선 2위를 기록했다.

3학년 유호영은 나경준과 계주 종목에 출전해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시초가 획득한 금메달 6개는 전남이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17개의 35%에 해당된다. 다시초의 선전에 힘입어 전남은 종합 8위를 차지했다. 다시초의 동계체전 성적은 전남 운동부가 아닌 클럽에서 성과를 거둬 전남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밝혔다는 평가다.

다시초 스포츠클럽 스키부는 지난 2019년 창단됐다.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도 일주일에 두 번, 1교시 전에 실시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 학생들은 지난 103회 전국동계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 1개를 수확하며 가능성을 열었다. 이어 이번대회에서는 전문 운동 학교를 제치고 메달 8개를 가져왔다.

배민주 코치는 “대회가 끝난 직후 설상종목 감독들은 다시초의 성과에 대해 다관왕 배출이 아닌 전국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겨울 스포츠 불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